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려주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깊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천 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내 뜻을 내 방식으로 이뤄 줄 왕을 맞이하고 싶은 욕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을 다듬어 주십시오. 군림하고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강원도 산불로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까지 시커멓게 타 버린 이재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랑과 희망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53:4,5 인도자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범석 목사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139.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다 함께

▲ 성경봉독 시 118:19~29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호산나 호산나 I. 마중물 찬양대

II. 거룩한 성

II. 청파찬양대

말 씬		버린 돌, 머릿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방 준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내 삶의 문제에 골몰하느라 머릿돌을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희생과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고난주간 기도회

죽음을 본받는 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갈6:14)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현세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복된 죽음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니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활동하려면 죽음이 먼저 작용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 오는 복된 생명은 승리 후의 복된 생명, 온갖 투쟁을 종식시키는 복된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법에 대항하는 육적인 법의 세력이 사라지고, 죽어야 할 육신 안에 모든 걱정이 소멸되어 마침내 승리가 자리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생명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이 활동하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활동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상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의 광채가 우리 육신 안에서 빛나도록, 사도는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간절히 원하라고 권고합니다.”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슬을 깨뜨리는 사람은 죽음을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는 ‘온갖 불의의 사슬을 끊어 주고 멍에를 풀어 주어라. 압박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려라’하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옴을 허락하신 것은 죄가 끝장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죽음의 유익> 3.9.

암브로시우스(339-397년)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대 그레고리우스 교황과 더불어 서방 교회의 위대한 4대 교부에 속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죽음의 유익>에서 세 종류의 죽음을 설명한다. 첫째 영적 죽음, 둘째 신비적 죽음, 셋째 육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은 죄이며 육적 죽음은 물리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비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암브로시우스에 따르면,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 죽음을 본받는 것은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사슬을 깨뜨리는 것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삶에 작용하는 죽음을 신비적 죽음으로 간주하며, 생명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은 삶의 가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외면한다면, 먼저 신비적 죽음이 작용할 영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으로 인해 인간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곧, 신비적 죽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부활을 통해 인간 생명이 영원히 남게 되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신비적 죽음은 우리의 시간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한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사58:7)

“죽음이란 만인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영속적 ‘건너감’이어야 합니다. 부패에서 반부패로, 필멸에서 불멸로, 혼돈에서 평온으로 ‘건너감’에 따라오는 축복을 생각하고 기꺼워해야 합니다. 실상 죽음이란 악의 매장이요 덕의 일어남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유익> 3.9)

-한국교부학연구회, 「교부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분도출판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송이 산

- 김춘만

불 한번 스치면
삼십 년 동안 잠잔다는 송이 산
소나무들 숲가리 된 아침에
송이 숨소리와
향을 맡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평생 송이 산에 오르내리면서
작은 놈은 솔잎으로 덮어주고
땅속에서 몸 부풀리는 놈 행여 밟을까
걸음발 재던 그 사람의 눈에는
송이 포자 꿈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송이 산 한번 되기 위해
수백 년 바람에 흔들리고
솔잎은 수백 번 떨어져서 쌓이고
그 속에 햇살이 기어들어
땅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그 속에서 향기 나고 숨소리 생기는
그 아름다운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

삼십 년의 몇 번이 지난 뒤
솔이 서고
그 몇 번이 지나야 솔잎이 쌓이고
그 속에 햇살 한 백 년쯤 살고 난 뒤
날아갔던 송이 포자 몇 개가
내려앉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혜린	구명자	권미정	김금순	김나름	김명희b	김미숙	김병대
김수진b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태홍
최희영	김정린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b	김지훈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형근	김형욱	김홍수	전성호	남명진	김애정
남윤경	노신후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연주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a	방 민	방 준	배강우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서수진	소광섭
김숙희	송정근	이소선	신동완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안홍숙	홍순구	왕수명	우순덕	유중희	이건호b	윤영주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재훈	이정은	이한나
이호원	임선자	임성택	홍순위	임형욱	장기환	장영숙	장의림	전성숙	전현선
정성훈	정택중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주은경	지윤미	최승주	조호진	최영민
이상미	최옥분	최종원	최형경	노진래	최형민	최희영	홍순복	홍운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수연	김영빈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영	김정린	김태정
박기영	송인선	안민호	안현호	오은영	유수진	이재삼	전정현	이지하	임채진
이영희	임혜진	전정목	전맨디	조병무	송양진	무명			

생일감사헌금

손규현 최윤희

녹색꿈헌금

고희도 이미정 이승지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성경공부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2.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고난주간 기도회 :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저녁 7: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4. 부활절 새벽예배 : 부활절 새벽예배가 다음 주일(21일) 오전 6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세례입교식 : 부활절 1부 예배 중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6. 부활절 유정란 판매 : 생협에서 부활절을 맞아 유정란을 판매합니다. 유정란 30알에 11,500원, 구운유정란 40알에 21,000원(택배)입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생협에 구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6일(화) 오전 10시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8. 신앙실천 :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요 20:24~29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김정민	박석희	이범석

4월	1부 영접위원	이부용	한금위원	곽관희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상규 이동천 신정훈 박미연 김태정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이현순 이증자 조미선 박명제 서미경 김숙희 소광섭 박기태
다음주식당봉사	박홍재 정연희 안미순 김태정 김영희 오연훈 한상균 조두희
오늘설거지봉사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56-60세)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